

Overweight

전기전자 (Overweight)

MLCC 산업, 앞으로 3가지 촉매를 기대

트렌드포스, 삼성전기 가격 인상 가능성 제기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4분기 중 OEM·ODM을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링크]. 그동안 삼성전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해왔다[표1, 2]. 참고로 삼성전기 기준 유통채널 비중은 10%대인 반면, 직납 비중은 80%대다. 따라서 동사와 같은 선두업체에는 직납가격의 움직임이 이익 추정치 상황에 더욱 중요하다.

통상 4분기는 전장용 MLCC의 판가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다.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여타 OEM에 대한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에도 적절한 시점이다. 따라서 트렌드포스가 제기한 가격 인상 가능성은 시기적으로도 현실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 대형 OEM들은 공급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LTA를 요구하며 높은 가격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VR NVL72에서 MLCC의 BoM 비중은 1% 미만이다. OEM 입장에서 일부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 가지 촉매를 기대한다

당사는 Yageo를 포함한 2nd tier의 가동률을 업황의 이정표로 삼아왔다[링크]. 후발 업체의 가동률이 90%에 도달하는 시점을 본격적인 업황 타이트함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다음 국면에서는 ① 유통채널 가격 인상에 따른 3분기 OPM 레버리지 확인, ② 4분기 직납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LTA 가격 상승, ③ 하반기 중 Murata의 가격 인상 가능성에 주목한다.

① 단기적으로 삼성전기를 포함한 MLCC 업체들의 3분기 수익성이 중요하다. 유통채널 가격 인상 효과가 사실상 처음으로 온기 반영되는 분기이기 때문이다. 일부 가격 인상만으로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첫 분기라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는 이러한 '가격 레버리지'가 확인될 경우, '27년과 '28년 이익 눈높이 상향의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② 4분기 OEM 대상 직납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후 체결되는 LTA 가격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향후 체결되는 LTA에는 '27년 물량이 상당 부분 포함될 전망이어서, 우호적인 가격 조건으로 확보한 물량은 '27년 이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당사는 이러한 가격 및 계약 구조의 변화가 '27년과 '28년 이익 추정치의 업사이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삼성전기는 '27년 Capa.의 약 60%를 LTA로 확보할 계획이다.

③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Murata의 유통채널 가격 인상 역시 중요한 모멘텀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가격 인상에 매우 보수적인 Murata가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는 신호다. 둘째, 과거 경험상 Murata의 유통채널 가격 인상은 해당 채널에 대한 공급을 줄이고 직납 고객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 경우 유통채널의 공급 여건은 더욱 타이트해지고, 후발 업체들의 가격 인상 스탠스도 한층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전기전자]
고의영
2122-9179
ey.ko@imfnsec.com

[IT RA]
박정하
2122-9195
jhpark@imfnsec.com

표1. MLCC 업체별 MLCC 리드타임 및 가격 동향: Future Electronics에서도 8월 리드타임 추가 확장, 삼성전기와 Yageo의 가격 인상 관찰

업체	스펙 구분	리드타임 동향					가격 동향				
		4월	5월	6월	7월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urata	<1uF	▲	=	▲	▲	▲	=	=	=	=	=
Murata	>1uF	▲	=	▲	▲	▲	=	=	=	=	=
Murata	Auto	▲	=	▲	▲	▲	=	=	=	=	=
삼성전기	<1uF	▲	=	▲	▲	▲	=	=	=	▲	▲
삼성전기	>1uF	▲	=	▲	▲	▲	▲	=	▲	▲	▲
삼성전기	Auto	▲	=	▲	▲	▲	▲	=	=	▲	▲
Taiyo Yuden	<1uF	▲	=	▲	▲	▲	▲	▲	▲	▲	=
Taiyo Yuden	>1uF	▲	=	▲	▲	▲	▲	▲	▲	▲	=
Taiyo Yuden	Auto	▲	=	▲	▲	▲	▲	▲	▲	▲	=
TDK	<1uF	▲	▲	▲	▲	▲	▲	▲	▲	=	=
TDK	>1uF	▲	▲	▲	▲	▲	▲	▲	▲	=	=
TDK	Auto	▲	▲	▲	▲	▲	▲	▲	▲	=	=
Yageo	<1uF	▲	=	▲	▲	▲	=	=	=	▲	▲
Yageo	>1uF	▲	=	▲	▲	▲	=	=	=	▲	▲
Yageo	Auto	▲	=	▲	▲	▲	=	=	=	▲	▲

자료: Future Electronics,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표2. 연초 이후 주요 수동소자 업체들의 판가 인상 결정. 이제는 Murata의 MLCC 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한 촉매

시행일	업체	대상 제품	인상폭	적용 범위·배경
2026.02	Yageo	일부 칩저항	10~20%	은·루테튬·팔라듐 등 귀금속 가격 상승 반영. 특정 R-Chip 제품군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통지
2026.04	Yageo·KEMET	KO-CAP 폴리머 탄탈 커패시터	20~30%	AI 서버 수요와 인력·재료·설비 비용 상승. 최근 9개월 동안 세 번째 탄탈 커패시터 인상
2026.04	Murata	칩 페라이트 비드, 파워 인덕터, RF 인덕터, 공통모드 초크	n/a	은 가격 급등으로 자체 원가절감만으로 비용 흡수 어렵다고 설명
2026.04	Yageo	일부 소비자용 및 자동차용 MLCC	n/a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기존 가격·원가 구조가 불균형해진 규격을 선별해 가격 조정
2026.05	Taiyo Yuden	MLCC, 인덕터, 페라이트 비드, 세라믹 RF, FBAR·SAW, 알루미늄 커패시터 등	소비자용 6~13% 서버용 10~30%	금·은 등 원재료와 부품 가격 상승. 대만 언론은 전체 품목의 인상폭이 대체로 두 자릿수라고 보도
2026.06	삼성전기	MLCC	10~20%	AI 서버·전장용 고용량 MLCC 수급 타이팅을 반영해 가격 조정
2026.06	Yageo·KEMET	일부 탄탈 커패시터	n/a	ASIC 서버용 탄탈 커패시터 공급 부족. 신규 가격표를 6월 1일부터 적용
2026.07	Panasonic	SP-Cap 고분자 알루미늄 커패시터	5~30%	은·동 등 원재료, 제조비와 설비투자비 상승. AI 서버·GPU 가속기용 고급 커패시터 수요 증가
2026.07	Yageo	MLCC, 탄탈, 알루미늄 전해, 고분자 알루미늄, 필름, 슈퍼커패시터 등 전 솔루션	n/a	최근 수년간 가장 광범위한 조정. 기존 유통상 중심에서 OEM·EMS 직접 고객까지 적용 범위 확대
2026.08	삼성전기	중국 선전 판매법인의 Markup Business Code 적용 MLCC 전 품목	30%	판매 협력사·현지 유통사 출하분에 적용. 구조적 수요 증가와 공급량 부담을 인상 사유로 제시
2026.09	Taiyo Yuden	MLCC	n/a	5월에 이은 추가 인상. 원재료비 상승분을 여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인상 이후에도 공급량과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통지

자료: CTEE, Digitimes 등 언론사 종합,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